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재개관

시설 보수·운영 체계 정비 본격적인 방문객 맞이 나서

남원시는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 약 2개월간의 단장을 마치고 지난 3월 1일 공식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남원에촌은 기존 민간위탁 계약 종료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으나, 신규 민간위탁 계약 체결로 시설 보수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며 본격적인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남원에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해 이근복 번외장, 유종 토수 등 국내 최고 한옥 명장들이 참여한 순수 고건축 방식으로 재현한 정통 한옥 공간으로,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전통 문화자산으로 평가받는 남원에촌은 목재와 황토 흙벽, 전통 구들장, 솟을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해 한옥 본연의 구조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정통 구들장의 온기와 고유의 공간감은 남원에촌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꼽힌다. 재개관과 함께 숙박과 관광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강화,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마패 서비스'를 이용하면 광한부인 등 남원의 주요 관광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 약 2개월간의 단장을 마치고 지난 3월 1일 공식 재개관했다.

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민간위탁 3기 운영을 맡은 (주)이랜드파크는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매출 및 기동률, 외국인 투숙 실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정량화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

획이다. 오미션 관광시설과정은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운영 효율을 높여 남원에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5부 '깡패와 과거' (2)

교차점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물론 그도 육이오 당시 학도대에서 활동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건 박창수가 아닌 박대우 때문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강정근보다는 강남준이 더 의심의 대상이 된다.

강정근 말에 의하면, 그는 박창수의 탄핵 때문에 고창유격대에서 탈출해야 했고 박명희와 헤어졌다.

지금으로써는 강남준이 유력하다. 강남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 강남준에 대해 누구에게 더 알아봐야 할까.

강정근은 강남준이 고창유격대에서 박명희와 헤어져 나온 뒤로부터는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그런 고민들을 등에 짊어진 채 동식은 다음날 호안마을로 봉사활동을 가려고 아무 다리에 올랐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문득 호안마을이 고창을 신월리에 있다는 사실과 강정근이 이야기해준 강남준의 외가가 고창을 신월리 신동마을이라는 게 떠올랐다.

둘 사이에 뭔가 교차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생각이 깊어졌다. 동식은 도로변에 차를 세운 후 말보로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허공으로 출가시키면서 퍼즐을 맞춰 보려 생각에 젖었다.

강 루이자 수녀가 말했던 깡패 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농악을 잘했는데 특히 피리를 잘 불었다고 했다. 그는 맹인 무당과 인연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다.

그 깡패란 사람이 강남준은 아닐까? 강남준은 박명희와 헤어질 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박명희는 시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했다.

동식은 자신이 말보로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렸다. 담배는 허공에서 저 혼자 쓸쓸하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고통하게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동식의 몸은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담배를 들고 있던 손가락이 떨렸다. 이내 손 전체에 경련이 일어났다.

경련은 급히 팔로 옮겨왔고 어깨와 등과 가슴과 복부로 이동했다. 다리는 이미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온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떨고 있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었다. 자신과 강남준과 박명희 사이에 어떤 선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동식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루이자 수녀에게 그 깡패 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녀들이 낯은 자식이 곧 강동식이라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 강동식이 그녀들의 자식이라는 추리는 아직은 비약이다. 동식은 얼른 고개를 좌우로 급히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박창수를 죽인 자가 강남준이 아닐까를 찾고 있지 않나. 루이자 수녀가 말한 깡패가 강남준일 확률이 없지 않다. 그는 죽었다고 했다.

그가 이미 죽었다면 즉 강남준이 죽었다면 강남준은 박창수를 죽인 자가 아니다. 동식은 다시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루이자 수녀에게 얼른 가서 깡패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호안마을에서는 여전히 폭설로 무너진 낡은 축사 건물 잔해들을 치우고 있었다. 동식은 하루 쉼 걸 벌충하려는 듯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보호관찰관은 흐뭇한 미소로 동식을 쳐다봤다.

관리하는 피보호대상자가 성실해지면 아무래도 자신의 업무 성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동식 같은 알아주는 건달이 개과천선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청년 문화예술 경험 지원 강화

완주군,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운영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에게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0세(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로 넓혔다.

지원 금액 역시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층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해 공연·전시뿐만 아니라 영화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으며,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라인 예매처도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완주군은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



월까지 1차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원데이 클래스 공개수업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6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원데이 클래스 공개수업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성인들이 우리 전통예술을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악 입문 프로그램으로,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이고 수업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국립민속국악원 내 연습실에서 진행, 해금(24일)·가야(25일)·관소리(26일)·설장구(27일)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모집 대상은 국악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성인이며, 과목별 정원은 15명으로 선착순이고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습에 필요한 악기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비치해 처음 배우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면 된다. 각 강좌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통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